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_환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TEXAS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6년 8월 21일-2017년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Texas A&M 대학교는 Texas 중심부에 위치한 College Station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휴스턴까지는 차로 한 시간, 오스틴은 3시간, 달라스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학교가 텍사스 주에서 1,2위를 다투는 학교다 보니 College Station=Texas A&M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에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학교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캠퍼스가 정말 넓은데 먼저 와있던 친구한테 캠퍼스가 넓은 길로는 미국에서 손꼽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셔틀버스가 많습니다. 루트도 다양하고 배차 간격도 짧아서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 웬만한 곳도 다 데려다 줘서 개인 자가용이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p> <p>학교 시설도 정말 좋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모여서 밥을 먹고 동아리 활동하는 MSC, 캠퍼스 내에서 가장 큰 Evans Library, 여러 식당들이 있는 Sbis Dining hall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좋았던 건 체육시설인 Rec center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 농구, 배구, 런닝트랙 등 정말 다양합니다. 학생증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매일 가서 운동했습니다. 특히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p> <p>학교 분위기 또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가 백인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인종차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워낙 히스패닉,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생들 대부분이 스스럼없이 잘 대해줍니다. 교수님들도 차별없이 잘 대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수업 열심히 듣고 질문 많이 하면 교환학생이든 미국인 학생이든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p>

<p>2016-2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HIST 105(U.S. History): 건국부터 남북전쟁 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A&M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200명의 학생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William Collopy였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시험도 중농담도 하셨습니다. 수업은 PPT로 진행되는데 안 좋은 점이 있다면 PPT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필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교재는 책 3권이고 매일 책 내용을 미리 읽어오는 수업이 있습니다. 평가방식은 퀴즈 10번(처음 두 번은 수업시간에, 나머지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톡방 같은 곳에서 답을 알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 3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모두 객관식입니다). 다른 수업들과 다르게 에세이 과제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월수금 8시 수업이라 수업가기가 정말 힘들었고 배경지식이 없다보니 수업중간쯤 되니까 듣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p> <p>PSYC107:심리학개론 수업입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필수 수업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배우는데 역시 배경지식이 없어서 힘들었고 매주 읽기과제가 있습니다. 평가방식 역시 퀴즈와 시험 5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심리학과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해야 하는데 주제가 다양해서 재밌었습니다. 심리학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성함은 Jay Schumacher입니다. 이 교수님 수업의 장점은 퀴즈에서 내셨던 문제를 시험에 똑같이 내신다는 점입니다.</p> <p>ECON203(Principles of Macroeconomics): 거시경제이론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한국분이시기도 했지만 경제과목은 원래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배우는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수업중간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뉴스기사나 거시경제 관련 지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주셨는데 역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3번, 숙제(퀴즈형식 2번), 수업 중간 예고없이 진행되는 퀴즈와 출석체크가 평가기준이었습니다. 수업에 꾸준히 나오고 퀴즈 열심히 푼 학생들에겐 가산점을 많이 주셔서 점수 잘 받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p> <p>STAT 201(Elementary of Statistical Inference): 통계학개론 수업입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 저희 과 사회조사방법론 수업을 듣고 통계에 관심이</p>
------------------------	--

	<p>생겨서 들었는데 개론수업이고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랑 겹쳐서 수업내용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통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굳이 이것부터 듣기보다는 STAT211부터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시험과 온라인으로 강의교재를 읽고 푸는 연습문제와 숙제가 평가기준입니다. 점수 잘 받으시고 싶으시면 연습문제 성실하게 푸시길 바랍니다.</p> <p>KINE199(Beginner Swimming): 위에서 말씀 드렸던 Rec center에서 진행되는 운동수업입니다. 자유롭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물에 뜨는 법, 다이빙, 자유형, 배영까지 배웠는데 이 수업을 통해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소규모 수업이다 보니 교수님께서 일일이 자세도 잡아주시고 수영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친구도 여럿 사귀었습니다. 다른 다양한 운동수업도 많이 있으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p>
<p>2017-1학기 수업</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GEOG301(Geograph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지리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매 수업마다 미국의 여러 주들의 지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각 주의 특징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 꽤 유익한 수업이지만 역시 ppt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0번의 퀴즈와 3번의 시험, 2개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총점이 100점이어서 패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p> <p>FINC341(Business Finance): 재무관리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경영대학생들이 꼭 들어야 될 과목 중 하나여서 한 수업에 300~400명 학생들이 큰 강의실에서 같이 듣습니다. 퀴즈가 12번, 시험이 4번 있는데 모두 재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학교 서점에서 강의록, 기출문제 등을 구입할 수 있어서 복습과 시험 공부만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전에는 리뷰도 해주고 조교들도 친절하게 알려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p> <p>ENGL241(Advanced Composition): 라이팅 수업인데 제일 힘든 수업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듣기 좋았다고 생각한 수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글쓰기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매주 문법책을 읽고 연습문제를 풀어오고 교수님이 따로 내주시는 글쓰기 과제를 해가면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따로 없고 총 5가지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합니다. 수업은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p>

	<p>글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p>STAT211(Principles of Statistics 1):통계학 수업입니다. 같은 개론수업이지만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었고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질문하면 대답도 잘 해주셔서 재밌게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Paul Dahm이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진로에 관해서도 의논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로 많이 조언도 해주셨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수강신청, fee 납부, 보험 등 필요한 절차나 일정은 모두 Study Abroad Office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교환학생 담당인 Katy Lane이라는분께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오피스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모두를 담당하는 ISS(International Student Service)가 있습니다. 교환학생들도 ISS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초에 외국인유학생들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이때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공짜로 점심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경영대에서 수업 듣는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다같이 모여서 수강신청 방법도 설명해줍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날씨는 텍사스라 그런지 매우 덥습니다. 여름에는 습도도 높아서 정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실내에는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겨울에도 한 달 정도만 춥고 그 이후에는 따뜻해서 반팔을 입고 다니곤 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우니 여름옷을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이 매우 뜨거우니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비는 자주 오지 않지만 한번 올 때는 정말 많이 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학교 캠퍼스내 뿐만 아니라 College Station 도시 자체도 정말 안전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 너무 늦은 시간에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학교 내에 경찰서가 있고 순찰도 돌기 때문에 안전한 편입니다. 여학생들을 위해 ROTC학생들이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있어서 캠퍼스 내에만 계신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학교 외부에 있다고 해도 셔틀버스가 많고 늦게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제가 두 학기동안 살았던 FHK기숙사 중 Keathely Hall이라는 발코니 형식의 기숙사였습니다. 2인실 두개가 붙어있고 화장실을 공유해서 쓰는데 기숙사가 정말 오래되고 방음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1층에 거주해서 돌아다니기 편했고 공동 주방이 있어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학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어서 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매층마다 RA(Residence Assistant)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학교 메인 캠퍼스 내에 있어서 수업가기는 정말 편했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0)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p> <p><i>외부식당 () 직접 요리(0) 기타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1학기에는 밀플랜을, 2학기에는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밀플랜은 300달러 다이닝 달러, 밀플랜 45개짜리를 먹었는데 밀플랜은 정해진 곳에서 밀플랜과 교환가능한 메뉴들을 먹을 수 있고, 다이닝 달러는 그냥 액수를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지만 주로 기름진 음식도 많고 음식들도 비싸서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p> <p>2학기에는 HEB라는 대형 식료품점에서 주로 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었는데 훨씬 저렴했고 더 잘 해먹었습니다. BCS라는 Asian마트도 있어서 거기서 쌀이나 간장, 고추장들을 사서 요리해 먹고 가끔 친구들과 함께 휴스턴이나 달라스에 있는 H마트라는 한인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미국학교 기숙사는 한국과 달리 냉장고를 방에 넣을 수 있어서 식재료 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소고기가 매우 저렴해서 많이 먹을 때는 1주일에 두번씩 스테이크를 사서 구워 먹었습니다.</p>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학교 내 기숙사에 살아서 수업 갈 때는 주로 걸어갔고 경영대 건물은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덥지 않으면 주로 걸어다녔는데 자전거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얼마 내고 자전거를 빌리거나 중고로 싸게 사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외식하거나 장을 볼 때는 버스를 타고 짐이 많을 때는 친구들에게 주로 부탁했습니다. 다른 도시를 갈 때도 친구 차를 얻어 타서 기름값을 주는 형식으로 주로 다녔습니다. 휴스턴 공항을 갈 때는 Ground Shuttle이라는 밴 서비스가 있는데 짐이 많거나 공항 갈 때는 정말 좋습니다. 텍사스가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약 2000만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380(편도 74, 64)	
보험료	자매대학 보험-\$998*2= \$1996	
숙소	\$2100*2=\$4200	
식비	\$50/m*7=350	
교통비	없음	
책값	학기당 \$100?	책값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전공책들은 비싼건 몇백달러 하는것도 있어서 주로 학교 서점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렌트를 합니다. 재고가 금방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1	여행비	

Account Payment			
<p>Thank you for your payment. We will send you a confirmation e-mail with payment details. For a record of all your payments, please see the Payment History.</p>			
Amount	Payment Method	Confirmation	Payment Receipt
<p>Payment Receipt</p> <p>Your payment in the amount of \$3,079.00 was successful. A confirmation email was sent to [redacted]. Please print this page for your records.</p>			
Payment date:		1/26/17	
Amount Paid:		\$3,079.00	
Student Name:		Kim	
Paid to:		Texas A&M University	
		UNITED STATES	
Account number:			
Name on account:		KIM	
Account Type:		Checking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첫 째는 영어입니다. 교환학생을 붙고 나서 과 교수님께서 듣기, 읽기, 라이팅 등 영어 공부를 철저히 해 가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안 한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현지에서 대화할 때는 토플 리스닝보다 더 빨라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수업은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천천히 하시는 편이지만 배경지식이 없는 과목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일단 리딩, 리스닝, 어휘를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리딩은 원서로 된 책이나 영자신문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리스닝은 TED강의나 AP,CNA뉴스가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어휘는 1100 words you need to know, Word Smart, Word Power made easy등이 현지 학생들도 많이 보는 어휘책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번역본)도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 수업입니다. 가시기 전에 학교 수업이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고 혹 확인할 수 없으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라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것이 한국에 비해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혹시 관심있는 분야나 전공이 있다면 가서 꼭 들어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미리 자신이 파견 될 학교 학생이랑 친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학교 글로벌 빌리지에 거주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친해지고 하면 나중에 파견가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응하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두 학기였습니다. 저는 혼자 가서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막막했지만 사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저도 잘 적응하면서 이겨냈습니다. 돌아해보면 때 순간순간이 망설임과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수트를 입고 취업 박람회에 가보고 이 모든 것이 저에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이기에 여유로웠고, 취업과 스펙에 대한 부담이 덜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저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보낸 시간도 많았지만, 쓸데없이 방에만 쳐 박혀서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정말 아쉽긴 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정말 많이 고민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과목이 생기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교수님을 찾아다니며 상담도 받고 관련 취업 박람회, 기업 설명회도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을 지원하실 목적이라면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얻고 싶은 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켜 보면 저는 교환학생 합격이 목적이어서 합격 후에 해야될 공부나 준비들을 하지 않아서 초기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추억이든, 여행이든, 공부든 확실하게 정하신다면 교환학생을 더 멋지게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전공과목은 많이 듣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교환학생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메일로 연락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us8015@gmail.com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A에 UCLA대학 방문했을 때



그랜드 캐년 방문했을 때



Kyle field(학교 풋볼경기장)에서
미식축구 봤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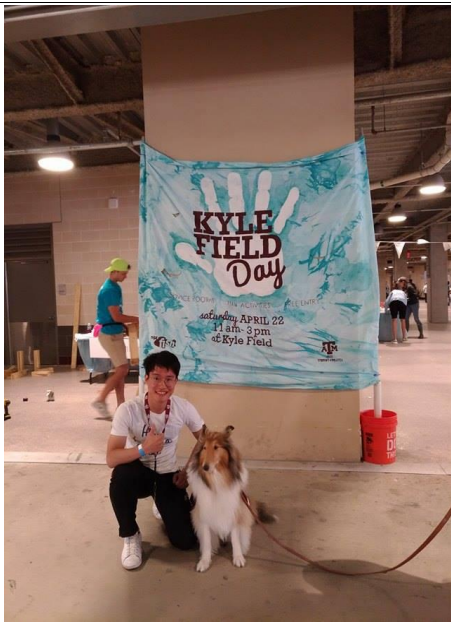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분수 쇼



금문교 방문했을 때



그랜드캐년 사우스림 입구



학교 마스코트(Reville)와 찍은 사진



벨라지오 호텔 분수 쇼